

“5·18 전야엔 질 수 없지” 또 끝내준 필



“이맛이야~”

KIA는 17일 오후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5 타이거뱅크 KBO 리그 프로야구' 두산과의 경기에서 3-3 동점이던 9회말 1사 1,2루에서 브렛필이 두산 클로저 윤명준으로 부터 끝내기 적시타를 뽑아내며 4-3의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필이 끝내기 안타를 친 뒤 자신에게 달려오는 동료선수들에게 두팔을 벌리며 환호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IA, 두산과 9회말 3-3 상황서 짜릿한 끝내기 승 한승혁, 8회 1사 등판...전날 패전 씻고 시즌 첫 승

KIA의 모범생 필이 홈팬들에게 다시 한번 짜릿한 끝내기 승을 선물했다. KIA 타이거즈의 필이 17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3-3으로 맞선 9회 2사 1-2루에서 두산 마무리 윤명준을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터트렸다. 두산 배터리가 1사 2루에서 감이 좋은 김주찬을 고의사구로 걸러내면서 필과의 승부를 선택했지만 초구에 경기 가 끝이 났다. 올 시즌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 두 팀은 전날에 이어 다시 한번 승마하는 접전을 벌였다. 선취점은 KIA가 가져갔다. 신인 김호령이 우전안타로 출루한 뒤 김주찬의 안타로 3루에 안착했다. 필의 땅볼타구 때 3루수 허경민이 2루에 송구를 했지만 발빠른 김주찬이 세이프가 됐다. 타자주자 필도 먼저 베이스를 밟으면서 만루가 됐다. 이범호의 플라이 타구가 2루수 오재원에게로 향한 사이 김호령이 재치있게 홈을 파고들면서 선취득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선발 양현종이 2회 양의지, 4회에는 오재원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면서 1-2로 두산이 리드를 가져갔다. KIA가 5회 이성우의 2루타에 이어 김호령-김주찬의 연속안타로 승부를 2-2로 되돌렸다. 그리고 7회 강한울의 선두타자 안타로 다시 기회를 만들었다. 이성우의 희생번트에 이어 김원섭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3-2 역전에 성공했지만 승리는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7회를 삼자범퇴로 깔끔하게 막은 좌완 심동섭이 8회 양의지를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김재환에게 우월 솔로포를 맞으면서 동점을 허용했다. 결국 9회말까지 이어진 승부, 1사에서 동점포의 주인공인 두산 1루수 김재환이 땅볼 타구를 놓치면서 발빠른 김원섭이 출루에 성공했다. 김호령의 번트타구로 2사 2루, 두산이 김주찬을 고의사구로 내보내며 필을 선택했다. 타격감이 좋지 못했던 필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며 초구에 승부를 끝냈다. 필이 바깥쪽 높게 들어온 직구를 밀어 우중간

2루타를 만들며 승마하는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3월 29일 안방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끝내기 홈런을 날렸던 필의 두 번째 끝내기 쇼였다. 필은 “김주찬이 워낙 잘 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의사구를) 개의치 않고 했다. 집중해서 내 타격을 하려고 했다. 이겨서 기분이 좋다”고 끝내기 소감을 밝혔다. 마운드에서는 한승혁이 웃었다. 전날 몸이 좋지 않은 마무리 윤석민을 대신해 9회 마운드에 올라 패전투수가 됐던 한승혁은 3-3으로 맞선 8회 1사에 등판해 5개의 아웃카운트를 책임지면서 시즌 첫 승을 기록했다. 9회 허경민을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두산의 중심타자 김현수를 상대로 더블플레이를 유도하면서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한승혁은 “전날 나 때문에 팀이 져서 부담감이 있었는데 코치님께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셔서 과감하게 했다. 필에게 고맙다”고 언급했다. /김여욱기자 wool@kwangju.co.kr

‘800타점’ 이범호 “축하는 1000타점 때 받겠습니다”

덕아웃 특·특

▲“안 믿는데요.” = 여러동절 박찬호였다. 홍재완 타격 코치가 17일 훈련에 앞서 내야수 박찬호에게 “오늘 경기 나간다”라고 선발 출전임을 알려줬다. 박찬호의 반응은 “네? 네”. 당황한 홍 코치가 “8번 타자 유격수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여러동절 한 박찬호. 지난 12일 올 시즌 첫 1군 등 록과 함께 2루수로 선발 출전을 했던 박찬호는 스리번트 실패 등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이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됐다. 홍 코치는 옆에 있던 김민호 타격 코치에게 “안 믿는데요”라며 웃음을 터트렸다. ▲“뿌듯하더라고요.” = 16일 덕아웃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다. 맹장수 솔로 시즌 준비가 늦어졌던 김병현이 1군에 합류하면서 광주일보 박리거 3인방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넥센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서재용과 최희성이 부상과 부진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세 사람이 함께 야구를 하지 못

했다. 한 자리에 서서 경기를 지켜봤던 세 사람. 만행 서재용은 “나란히 서 있는데 뿌듯했다”며 3인방이 함께 하게 된 소감을 밝혔다. 15일 선발로 준비를 했던 서재용은 비로 등판이 밀리면서 엔트리까 말소됐다. 1군과 동행하는 서재용은 등판 날짜에 맞춰 엔트리에 재 등록될 예정이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 돌아온 김병현의 독특한 입담이 화제가 됐다. 17일 김병현은 6회 1사에서 시즌 첫 등판을 소화했다. 8개의 공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처리한 김병현. 1사 1-2루에서 허경민의 타구가 2루수 김민우의 글러브로 빨려들어가면서 투아웃, 스타트를 끊었던 2루주자 정진호까지 아웃이 됐다. 2루 아웃을 만드는 과정에서 잠시 시간이 필요했다. 세이프 판정이 났지만 공을 잡은 유격수 박찬호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것이다. 판독이 이뤄지고 있는 사이 2루로 걸음을 옮긴 김병현은 무엇인가를 이야기 하고 마운드로 돌아왔다. 경기가 끝난 뒤 김병현은 “(정진호에게) 아웃이나 세이프냐고 물었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다”며 웃었다.

▲“1000타점 때 받겠습니다.” = 800타점 고지를 밟은 KIA의 주장 이범호는 아직 목이 마르다. 이범호는 16일 유희관을 상대로 투런을 때려내면서 프로야구 통산 24번째로 800타점을 채웠다. 하지만 야구 욕심이 넘치는 이범호다. 17일 사람들로부터 800타점 축하 인사를 받은 이범호는 “1000타점 때 축하해주시시오. 그때 축하를 받겠다”고 웃었다. ▲“성우 형이 던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 16일 패전투수, 17일 승리투수가 된 한승혁. 17일 승부처는 9회 1사 김현수와의 승부였다. 앞서 허경민을 스트레이트 볼넷으로 내보냈지만 위기 상황에서 던진 직구가 3루수 이범호 앞으로 향하면서 5-4-3으로 이어지는 병살타가 됐다. 한승혁은 “포크볼을 던지려고 했는데 성우형이 던지지 말라고 했다. 직구 승부가 잘돼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김여욱기자 wool@

광주 동성중, 동우회장기 중등부 야구대회 ‘우승’

광주동성중이 제20회 광주야구인 동우회장기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동성중은 최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결승에서 충장중을 상대로 7-0, 5회 콜드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진흥중(13-8), 무등중(10-9)을 제압하고 결승에 오른 동성중은 충장중과의 승부도 콜드승으로 장식하며 우승했다.

우승을 차지한 동성중은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5회 대통령기 전국중학교 야구대회에 광주대표로 참가한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지강혁(동성중) ▲우수투수상:김성민(동성중) ▲타격상:이현서(0.857·동성중) ▲최다도루상:서유신(2개·충장중) ▲최다타점상:한민호(8타점·동성중) ▲감투상:김창평(무등중) ▲미기상:고승완(무등중) ▲감독상:강대성(동성중) ▲지도상:김중석(동성중 야구부장) /김여욱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대팀,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3년연속 1위

121개팀 참가...콜핑 협찬

제48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서 광주시산악연맹(회장 임승진) 대표로 출전한 전남대팀이 여자대학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사)대한산악연맹(회장 이인정)이 주최하고 전남도산악연맹(회장 이상현) 주관, (주)콜핑(회장 박만영) 협찬으로 지난 16~17일 장흥군 천관산도립공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21개팀 400여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광주시산악연맹 소속으로 여자대학부에 출전한 전남대(박두리·이나원·차태양)팀이 1위에 올라 3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다. 또 남자대학부에 참가한 광주산악구조



지난 16일 장흥군 천관산도립공원 운동장에서 제48회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 개최식이 열리고 있다.

대 2팀(배현제·허철·정상혁)과 여자고등부에 출전한 광주연합팀(변예지·김효경·김봄)이 각각 3위에 입상했다. 종합 1위는 울산시산악연맹(회장 박만영)에 돌아갔다.

한편 16일 열린 개최식에서 (주)콜핑은 대한산악연맹과 2015년과 2016년 대통령기 전국등산대회에 각각 6000만원 상당의 현금·물품(장비) 지원을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